

23-4,5,6 2023 년 4-6 월달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눅 22:70)

매주 보내던 선교편지를 3 개월만에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주 한주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뒤돌아 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간, 야간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잠시 쉬고 식사하고 일하고 주일예배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북미주에 살다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다. 불이익 보다도 고백해야 할 간절함과 필요성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도 있고 고난의 유무도 있고 소망의 유무에 따라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NJOY"라는 문화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문제도 없으면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난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이해 안되는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은 진리앞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려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로 고백할때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죽음의 위협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목적을 두고 마련한 이런 계획속에 주님이 빠져 들어간 것 처럼 보이지만 결코 주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리를 진리로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신앙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환경속에서 용기 있게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 4-6 월 사역을 돌아보며

1) 캠퍼스에서는 주 멤버들이 졸업을 하고 고국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캠퍼스에서 작년 2 번에 걸친 탁구대회와 야유회를 통해 45 명정도의 귀한 관계성을 가지고 출발했고 계속해서 관계성을 가지다가 FRANK(중국인), ADISU(이디오피아), AMIN 과 WIFE(이란 사람), ZEROFILE(아프리카), ISRAEL(아프리카) 와 같은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이들과 식사교제하고 성경공부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 ADISU 는 박사학위를 받고 직장 잡아서 캠퍼스를 떠나고 FRANK 는 학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AMIN 과 아내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란에서 보내겠다고 이란으로 갔습니다. 가끔씩 ZEROFILE 과 ISRAEL 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닭쫓던 개가 하늘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학생사역의 본질이 제자 삼고 이들을 파송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남지 않아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월은 이렇듯 많은 이들이 공동체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ADISU 형제를 다시 찾아가 만나 학사로서 잘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40 여명 되는 관계성 속에 있는 지체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은 계속해서 새로 주시는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일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영혼을 기대하며 다시 캠퍼스로 나가야겠습니다.

2) 교회사역에서는 모임의 장소가 다시 SHIPYARD 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0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JB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모였습니다. 금요일에는 탁구교제를 위해 3 시간, 주일은 예배와 탁구교제를 위해 4 시간 모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평균 15 명 주일에는 평균 20 여명이 모였습니다.

전도를 위해 투자한 레크레이션 렌트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매달 교제와 렌트비가 2000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완전 초신자, 이슬람 신앙인들, 천주교 신앙의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탁구라는 매체를 통해 모임을 이끌고 이들을 주일예배와 성경공부에 참석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비용에대한 압박감이 있었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는 10 명정도 모이게 되었고 그래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 월부터는 갑자기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탁구다이를 임대해 주지 안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마침 바깥날씨가 춥지 않았고 SHIP YARD 에 탁구 다이 하나를 놓게 되어서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속에서 탁구교제하다가 장소가 바뀌자 특별히 이란 할아버지들의 참석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 여명은 성경공부를 통한 예배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란 할아버지들과 필리핀 형제들을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먼저 성경을 이야기 하고 다가올 때 까지 곁에서 친구로 남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북미주 ESF 수양회



올해는 뉴욕에서 북미주 선교사님들과 학사님들이 함께 모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6 월 5 일에서 9 일까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50 여명의 선교사님들과 학사님들이 모여 훌륭한 주제강사(정사철대표, 한의수 목사, 임종학 목사, 홍귀표목사)를 모셔서 말씀잔치를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ESF 의 믿음의 거장들이신 미주의 선배 학사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뉴욕의 한무리 교회(박상돈 목사님 시무)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곳에서 대회 장소와 식사사와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성인까지 500 여명이 되는 성도분들이 계셨습니다. 박목사님은 알고 있었었지만 이렇게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뵈게 되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바램이고 전략인데 많은 선배님들은 여전히 변치 않는 비전과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 속에서 바울에게 무릎꿇지 않는 7 천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까지 병행하다 보니 많은 빛을 안게 되어 맘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수양회에 제가 이 내용을 간증속에서 발표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한무리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뉴욕지구와 학사님들 그리고 전주 ESF 의 학사님들을 통해 그 금액을 후원받게 되어

가장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박상돈 목사님과 성도님들 뉴욕지구와 학사님들 전주 학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주안에 행복한 교회와 핑퐁클럽의 코이노니아

북미주 수련회에 마치고 밴쿠버로 돌아와서 이어질 코이노니아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자마자 핑퐁 토너먼트와 코이노니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월 24일에는 핑퐁대회를 25일에는 코이노니아와 겸 초청예배를 드렸습니다.



핑퐁대회는 25명정도 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임의 출발점이 되는 핑퐁대회를 고민하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속에서 2시간 반동안 모임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가면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인 3명 이란인 2명이 새롭게 왔습니다.

처음 출발할때는 필리핀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얼굴이 보이지 않아 기도제목이 됩니다. 7월부터는 다시 토요일 4-6시 우리 부부가 참석하여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탁구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족 만들기를 하고 주일 모임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25일에는 갈릴리 교회 찬양팀을 초청하여 코이노니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도 30명정도 모였습니다. 변함없이 갈릴리 청년들의 열정적인 찬양 인도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음식 소불고기, 오삼불고기,잡채가 큰 인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이 음식은 잘 알고 있어서 음식 때문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탁구 멤버들에서 출발한 우리 교회이기에 탁구 대회 참석인원이 부진하면 코이노니아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이노니아를 통해 전도 모임을 계속 3개월에

한번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번에는 9 월 마지막주 주일에 갖고자 합니다. 장소와 탁구대회가 잘 이루어 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3. 7 월달 기도제목

1) 주일 예배 와 핑퐁교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렌트를 찾고 있습니다. 7 월안에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매주 화요일 캠퍼스 핑퐁교제와 전도 일대일 공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3) BONI 가족, 동수형제 , JONA, CATHY 자매가 일대일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4) 매달 2000 불 정도 교회 사역비가 잘 마련되도록

10 캐나다 후원교회와 20 개 한국 후원교회가 준비되어서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5)아내의 어린이집 교사 공부가 10 월달 까지 계속되는데 잘 적응하고 자격증을 받도록

6) 한국의 후원교회와 후원 동역자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준이의 밴쿠버 대학 편입과 요한 한나의 영육간의 강건함)